

의대 MMI 면접 예상질문 & STAR 모범답안

「면접끝판왕」 통합개정판 교재 코어 무료 공개 문항 · 2026학년도 기준 · 평가 의도와 STAR 구조 모범답안 예시 수록

Q1. A, B, C는 친한 대학 동기다. C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장학금을 받고 해외연수 기회도 얻었다. 이를 본 B는 자신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. 당신이 이 상황을 지켜본 A라면, B의 주장에 동의하는가? 동의하지 않는다면 B를 어떻게 설득하겠는가?

· 출제 의도 공감·소통 역량 평가. 감정 이입이 아니라 '기초생활수급자'라는 제도적 개념과 '가난'이라는 추상적 체감의 차이를 구분하고, 구제 대상 선정의 객관적 기준과 그 기준이 놓치는 사각지대를 함께 짚어내는 논리적 균형감을 본다.

[상황 정리(S)] 이 상황의 핵심은 B의 불만이 '제도의 경계선'에서 나온 정당한 어려움이라는 점입니다. C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, 지원 기준 밖의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.

[판단 기준] 저는 '긍정성은 같은 것을 같게,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'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겠습니다. C의 수혜는 정당하며, B의 어려움도 실재합니다.

[행동(A)] 친구로서 먼저 B의 감정을 충분히 듣고 공감을 표한 뒤, C와 비교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B가 이용할 수 있는 차상위 지원·교내 근로·성적 장학 등 대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

[마무리(R)] 이 경험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면, 학생회 건의 등 제도 개선 의견까지 내는 것이 성숙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.

☒ 코칭: MMI 대인 갈등형은 ①감정 공감 ②비교 프레임 해체 ③실질 대안 ④구조 개선의 순서. 누군가를 '설득해 굴복'시키는 답은 감점됩니다.

Q2. 밤늦게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응급실에 왔다. 아이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지만, 먼저 온 더 위중한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접수가 늦어져 부모가 의료진에게 화를 내고 있다. 당신이 그 응급실의 인턴이라면 화를 내는 부모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? 이 상황에서 의사로서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?

· 출제 의도 상황 판단 및 공감·소통 평가. 중증도에 따른 진료 순서(트리아지)라는 의료 원칙을 지키면서도, 자녀의 안전을 확신하지 못해 불안한 보호자의 심리를 함께 다루는 균형 잡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본다.

[상황 정리(S)] 부모의 분노는 '무시당했다'는 불안에서 나온 것이므로, 의학적 우선순위 설명 이전에 불안을 먼저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.

[판단 기준] 응급실의 원칙은 접수 순서가 아닌 중증도 분류(트리아지)이며, 이 원칙 자체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.

[행동(A)] 먼저 아이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안전을 보장하고, '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. 아이는 현재 안정적이며, 더 위중한 환자를 먼저 보는 기준 때문'이라고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겠습니다. 대기 중 상태 변화 시 즉시 알릴 것을 약속하고 예상 대기 시간을 안내하겠습니다.

[마무리(R)] 원칙은 지키되 소통으로 불안을 줄이는 것, 그것이 의료진의 갈등 관리라고 생각합니다. 반복되는 문제라면 대기 안내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겠습니다.

☒ 코칭: MMI 민원 상황은 '사과할 것(불편)'과 사과하지 않을 것(원칙)'을 분리하는 순간 합격권 답변이 됩니다.

Q3. 말기 암 환자 A씨는 항암 치료 후 전이가 발견됐다. 새로 나온 항암제는 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고 부작용도 심할 수 있지만, 주치의는 한 가닥 희망으로 이 치료를 제안했다. 호전 가능성은 20%,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50%다. 당신이 환자의 가족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? 당신이 주치의라면 가족에게 어떻게 권고하겠는가?

· 출제 의도 윤리 딜레마형 상황판단 평가. 낮은 성공확률과 높은 부작용 위험, 경제적 부담이라는 세 변수를 정답 없이 저울질하되, 환자 본인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논의의 중심에 두는지 확인한다.

[상황 정리(S)] 의학적 희망, 경제적 부담, 부작용 위험, 그리고 환자 본인의 삶의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. 핵심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환자 A씨입니다.

[판단 기준] 저는 '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환자의 자기결정'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. 효과 확률·부작용·비용을 숨김없이,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전제입니다.

[행동(A)] 치료 목표가 연명인지 삶의 질인지 환자·가족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, 신약 외에 완화의료라는 선택지도 동등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경제적 부담은 의료사회복지팀과 연계해 지원 제도를 확인하겠습니다.

[마무리(R)] 의사의 역할은 희망을 강요하는 것도 포기를 권하는 것도 아니라,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대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☑ 코칭: MMI 윤리 딜레마는 결론을 서두르지 말 것. '이해관계 정리 → 기준 선언 → 절차적 행동 → 역할 정의'가 표준 프레임입니다.

더 많은 문항·AI 채점 훈련은 interviews-platform.netlify.app 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가입 없이 진단 체험 가능)